

길림성, 인삼산업 고품질 발전 위한 10개 금융 조치 발표

신용공급 확대, 전문 금융상품 다양화, 차별화된 신용서비스 제공 등 3대 핵심 분야 10개 세부 조치 포함



최근 중국인민은행길림성분행은 길림금융감독국, 길림증권감독관리국, 성당위 금융판공실, 성재정청, 성농업농촌청, 성공업정보화청 등 7개 부문과 연합으로 <길림성 인삼산업 고품질 발전 지원을 위한 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신용공급 확대, 전문 금융상품 다양화, 차별화된 신용서비스 제공 등 3대 핵심 분야에 거친 10개 세부 조치를 포함한다. 조치는 또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지원을 강

화하고 인삼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할 것을 금융기관들에 요구했다.

전반 산업사슬에 거쳐 신용대출을 확대하게 되는데 인삼산업 발전 지원을 농촌산업 금융서비스의 핵심 과제로 지정하고 농업 관련 은행기관들이 인삼산업 전용 대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지원하며 인삼 종자 연구, 재배, 저장, 가공부터 브랜드 구축에 이르는 산업사슬 전반에 걸쳐 대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 금융상품 체계를 다양화하게

되는데 금융기관들은 인삼 재고 담보대출 및 '인삼 재고 + 보험증권' 복합 담보, '인삼 재고 담보 + 정책성 금융보증' 등 혼합 담보 방식을 확대하고

인삼 재고 담보대출 한도와 담보물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최초대출, 신용대출, 순환한도대출 등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전국 중소기업 자금흐름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삼 재배 조보 농가를 위한 낮은 진입 장벽과 유연한 상환 조건의 소

액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인삼 주문, 농기계, 림권(林权) 등을 담보로 한 대출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5년 순환한도대출 발급을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합리적인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산업집군이 발달하고 금융 수요가 활발하며 신용 등급이 우수한 지역에는 대출 심사 권한을 일부 이양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출금리 인하, 담보 평가 비용 및 저장 등기 비용 부담 등을 통해 종합적인 자금 조달 비용을 절감하고 국제금융서비스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인삼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인삼기업의 융자 경로를 넓히고 채무유자도구 발행에 대한 지도 강도를 높여 사모기업관리기구의 운용기관들이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인삼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재정금융정책 보장을 강화하고 통화정책 수단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인삼산업 대출을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삼 재배 정책성 보험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재정부서가 65% 또는 50%의 보험료 보조금을 제공하며 인삼산업기금을 설립하고 은행기구들이 '투자자 대출 펀드' 지원 모식을 모색하도록 권장하게 된다. / 길림일보

유수시 광복촌 촌주재 사업조 향촌 진흥 사업 힘있게 추진

유수시민정국 토교진 광복촌 촌주재 사업조는 2023년 8월부터 이 지역에 상주하면서 촌 제 1서기 송지국의 지도 아래 주재 간부들과 함께 민생수요에 꾸준히 초점을 맞추어 향촌 진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촌주재 사업조는 가구 방문을 통해 어려운 이들을 제때에 지원했다. 선전성심장병 환자 한명에게 농촌 최저생활보장을 신청해주었고 감시 대상 가구인 장련발 부부의 생계보조금을 월 5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해주었으며

2023년에는 토교진 민정판과 협력해 림시 구호 정책을 어려운 계층에 집중시켜 여러 최저생활보장 가구들이 림시 구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 지원을 위해 유수시장애인 협회와 적극 협력하여 두명의 주민에게 새로 의족을 맞춰줌으로써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었다.

촌주재 사업조는 특수 계층에 대한 배려에 주력하며 다층적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오래동안 누워 지내는 뇌경색 환자 한명을 위해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유수시 왕가대원 상업련맹과 연계

해 2,000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사회적 역량을 동원한 정밀 지원을 펼치며 정기적으로 그의 생활 상황을 점검했다. 광복촌에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촌주재 사업조는 유수시정협 9조의 지원을 확보했으며 정협위원들은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쌀, 밀가루, 식용유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유수시민정국에서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주민들을 정기적으로 위문하며 현금과 생필품을 지원해 명절 기간 주민들의 생활 수요를 충족시켰다.

2016년부터 광복촌 도로건설에 유수시민정국은 총 730만원을 투입해

14.77킬로미터에 달하는 촌급 세멘트도로와 마을 앞 광장 및 진입로를 건설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했다. 특히 2023년에는 26만 5,000원을 투자해 광복촌 도로변 배수로 전면 정비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마을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러한 일련의 민생 혜택 정책을 통해 촌주재 사업조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폭넓은 호평을 받았다. 주민들은 "민정국 간부들이 진심을 다해 실질적인 일을 해주니 우리는 당과 정부의 따뜻한 관심을 깊이 느낄 수 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길림일보

안도, '5대 공사'에 초점 맞춰 주택및도시농촌 건설 가속화

도시건설은 도시 형상과 관계되고 대중의 삶의 질과도 관계된다. 2025년 안도현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은 발전, 민생, 안전, 생태, 당건설 등 '5대 공사'에 초점을 맞춰 부동산 발전의 새로운 모식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도시 승격 행동을 실시해 건축업의 전환 승격을 촉진하고 주택및도시농촌 건설사업의 새로운 돌파를 이룩할 예정이다.

부동산 면에서 0.4만평방미터의

상품주택 판매를 완수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129채의 재고 상품주택을 인수하여 보장성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며 2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대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공임대주택 분배율이 90% 이상에 도달하도록 보장하게 된다. 업주위원회(부동산관리회)의 설립률을 70% 이상에 도달시키고 전문적인 부동산관리 주택 면적이 주택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75%에 도달

시키게 된다.

건축업 면에서 건축업의 고품질 발전을 다그치기로 했다. 년간 건설업의 생산액을 8억원 완수해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시키고 동시에 공사 품질 감독을 더욱 강화하여 건설중인 공사를 대상으로 품질 특별정돈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도시 승격 면에서 '미니공원' 한국을 건설하고 도시 친환경 도로 0.2킬로미터를 건설하며 록지면적 0.75헥타르

를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년간 급수, 배수, 가스, 난방 도관망 3킬로미터를 갱신, 개조하고 2000년말 이전에 완공된 도시 로후주택 개조 임무 네가지를 완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안도현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은 력사문화 보호, 마을 건설, 안전생산, 당건설 등 사업을 추진해 전현의 주택및도시농촌 건설사업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로 했다.

/ 중국뉴스넷

석현진 투자유치로 산업 발전의 새로운 길 개척

도문시 석현진은 투자유치를 중요한 엔진으로 특색을 갖춘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 정확한 포지셔닝으로 투자유치 방향 확정

자신의 우세를 깊이 발굴하고 특색농업, 신흥가공업, 향촌건축산업 등 분야에 립각하여 정확하게 위치를 정하고 투자유치 청사진을 정성껏 그려냈다.

1차산업은 현지 채리, 딸기, 아로니아 등 특색농산물, 2차산업은 세멘트교반소, 도관공장, 벽돌공장, 커피로스팅 등 대상, 3차산업은 벽해운천생태관광, 수남촌건축관광 등 관광자원에 의탁하여 산업련동성이 강하고 생산수익이 높은 일련의 량질 대상을 정성껏 계획했다.

◆ 경로 혁신으로 투자유치 통로 확장

투자유치 방식에 있어서 한편으로 '밖으로 나가 유치'하고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리용한 '전민 투자유치'를 동원했다. 석현진 당청 주요 지도자가 직접 팀을 인솔하여 장춘 등지에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했는데 루계로 50여회의 주동적인 기업 방문을 통하여 석현진의 투자환경, 우대정책 및 특색항목을 선전함으로써 많은 기업의 관심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여 투자유치를 얻었다. '전 국민 투자유치·석현진 주간업무동태' 위챗 공중계정을 개설하고 투자유치 정보와 프로젝트 동태를 적시적으로 발표하여 투자유치 선전 경로를 넓혔다. 동시에 두개의 투자유치 소분대를 설립하고 기업가와 '일대일'로 련락하여 인맥자원을 발굴하고 공휴일 귀향 계기

를 리용하여 잠재적인 투자유치 단서를 발굴하는 등 '온라인 + 오프라인'의 투자유치 구도를 형성했다.

◆ 봉사 최적화로 대상 착지 확보

'지도부 구성원 선도, 당원 시범, 전원 참여'의 봉사 모식을 구축하고 이미 계약한 대상에 대하여 주동적으로 수요를 련결하고 건설중에 직면한 어려움을 제때에 해결해주었다. 이미 정착한 중점기업에 대해서는 지도부 구성원이 중점기업과 련락하는 행동을 전개하고 정부와 기업간 교류 다과회를 소집하여 기업과 직접 소통했다. 또한 석현진은 기업이 부대기업을 유치하도록 적극 도와주고 인력의 기존 기업이 기타 기업과 20여차례 상담을 진행하도록 도와 주어 산업사슬을 확장하고 산업 규모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도문발표

‘사과배향 만방에 날린다’

연변사과배 향수 제품으로 변신

통정시에서 19년간 사과배를 재배한 량작과는 연변사과배가 디퓨저(香薰)로 만들어져 국내외로 팔려나갈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삼을 섞어 만든 선향(线香) 제품인 '인삼열군사과배향' 제품이다. 연변 특산물 업계의 '선두주자'로서 사과배는 문화창의산업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놀라운 활약을 보이고 있다.

사과배를 선향으로 만들어낸 회사는 장춘시에 위치한 중길향(길림) 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이다. 무형문화유산인 장백산인삼향 제조기술의 대표적 전승자인 진건신이 이 회사의 책임자이다. 그는 "사과배는 연변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년간 특등 연변사과배 9,000킬로그램을 사용하여 인삼열군사과배향, 연변사과배향 등 선향을 생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근년간 이 회사는 전통적인 향수 성분에 인삼, 빙설, 열군배 등 3대 길림 특색 요소를 녹여내 새로운 향수 분야를 열었다. '인삼방설향' 제품은 장백산지역의 인삼, 광천수와 빙설을 절묘하게 응용했는데 눈을 보기 드문 남방의 소비자들은 한 줄기 푸른 연기를 통해 후각으로 길림의 빙설관광을 체험할 수 있다. "사과배는 길림성의 특산물로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사과배를 리용한 새로운 응용정경을 개발했는데 바로 사과배로 선향을 만들어 과학기술에 의한 부농을 더한층 실현하는 것이다." 진건신의 이런 생각은 전통문화와 전통기술로 새로운 활기를 발산시켜 독특한 무형문화유산 문화창의 제품을 구성했다. 사과배가 이 과정에

사용되어 또 한번 화려하게 탈바꿈했다.

아삭하고 달콤한 사과배를 향료로 정제하려면 가루로 연마하고 향료와 분말을 혼합하고 향기를 수정하고 선향을 건조시키고 저장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모든 절차에는 정밀한 배합비율과 엄격한 생산환경이 수요된다. 레를 들면 향료와 진흙을 혼합하는 과정은 표면이 매끄러워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빛은 후 밀봉된 용기에 넣어 향료의 성분이 잘 스며들고 침투되게 해야 한다.

'어리장중향'(鹅梨帐中香)은 사람들에게 익숙히 알려진 향으로 현대 가정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향기를 내는 데 사용되는 배 가운데 유망주로서 사과배의 활약은 괄목할 만하다. '인삼열군배향' 한대를 태우니 산뜻하면서 달콤한 향기가 풍겼는데 열군배의 상쾌한 향을 맡은 듯한 익숙한 느낌이 들면서 북방사람들만의 특유의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이 선향은 또 심신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수면을 촉진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진건신은 "기업에서 생산규모를 확대하면서 연변지역의 인삼과 광천수 사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계획을 밝혔다.

료해에 따르면 최근 몇년간 연변 사과배는 차, 주스, 커피, 아이스크림 등으로 생산되었으며 최근 한 기업에서는 사과배 브랜드(白兰地)를 연구, 생산하기도 했다. 이번에 또 한번 업계를 뛰어넘어 향수 제품으로 생산되면서 사과배의 몸값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연변조간

돈화

년간 생산량 7,000톤 민족식품산업단지 본격 운영

년간 생산량이 7,000톤인 돈화시 민족식품산업단지 대상이 현재 정식 생산에 투입되었다.

생산작업장에 들어서면 작업일군들이 원료를 투입구에 넣는 모습이 안겨온다. 투입된 원료는 기계를 통해 두툼하고 둥근 형태의 찹쌀떡으로 만들어지고 이어 내부에 소가 채워지고 모양이 다듬어진 뒤 가루코팅 과정으로 넘어간다. 여기에서 찹쌀떡은 풍가루, 옥수수전분, 아자열매가루 등 다양한 가루를 입은 다음 수작업을 통해 식품포장 생산라인으로 옮겨진다.

작업자들은 포장기계를 사용해 제품을 밀봉 포장한 뒤 규격에 맞게 포장됐는지 확인하며 생산 일자가 뚜렷하게 표시되고 완벽하게 밀봉되도록 품질을 보장한다. 마지막 단계

에서는 제품을 랭동실로 옮겨 급속 랭동한 후 상온 및 항습 랭동창고에 저장하여 변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료해한 데 따르면 돈화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민족식품산업단지 대상은 길림가인식품유한회사에서 투자, 건설했는데 총투자가 5,000만 원에 달하고 부지면적은 1만 1,458평방미터, 공장 면적은 3,300평방미터, 사무청사 면적은 1,500평방미터에 이른다. 이 대상은 표준작업장, 국제인증 식품가공 생산라인 및 창고 등을 건설했는데 최대로 년간 관련 식품 7,000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대상의 년간 생산액은 5,000만 원, 세수는 3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돈화뉴스

연변우대무흡병원 대상건설 순항

기자가 해당 부문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최근 진행중인 연변우대무흡병원 건설대상은 전체 공사의 80%를 완료했으며 올해 9월말 준공될 예정이다. 병원은 2026년에 정식 운영에 들어가며 사용 이후 연변 지역 최초의 가정의학과재활 전문병원으로 자리잡게 된다. 이를 통해 전 지역의 우대무흡 대상자와 퇴역군인들에게 더욱 질 높은 재활 양생 통합 의료봉사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변우대무흡병원 건설대상의 총 부지면적은 1만 2,000평방미터이고 총건축면적은 1만 5,000평방미터이며 총투자가 1억 1,400만원으로 300개의 병상이 제공된다. 현재 종합문진청사, 의료기체발생실 및 쓰레기보관실의 주체구조 건설을 완수했다.

해당 대상은 '재활의학 + 중의물리치료 + 단기 료양'을 핵심으로 건강검진중심, 종의과, 의료건강회복과, 심리진료실(퇴역군인 PTSD 관여),



로년병전문과, 통증관리중심(만성통증 다학과 련합치료) 등 과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소개에 따르면 재활의료, 건강검진중심 및 의료와 양로 기능을 통합한 연변우대무흡병원은 시설이 구진하고 환경이 좋고 봉사가 좋고 기술이 좋으며 업계에서 현저한 지명도가 있는 우대무흡병원으로 건설하는 데 진력하여 광범한 우대무흡대상, 퇴역군인과 사회군체의 재활, 양생 일체화 의료봉사 보장 수요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사회 대중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제공할 계획된다.

/ 김영화기자